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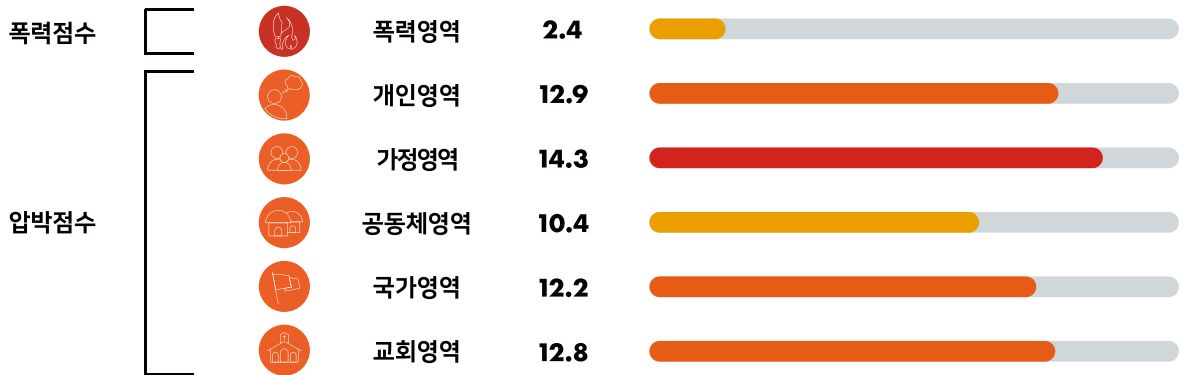
요르단 (JORDAN)

기독교 박해지수
50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정교회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고용에서의 차별, 활동에 대한 감시, 공개 설교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경우 구타, 체포, 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인되지 않은 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가 그러하다. 요르단은 스스로를 관용과 종교 간 대화의 등대로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급진화된 수니파와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돌아온 지하디스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요르단에는 살라피 무슬림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으며, 이들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과 다른 비순응 집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요르단 (JORDAN)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둘라 2세 국왕

인구 : 11,385,000명

기독교인 수 : 170,000명(OD 추정치)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의회제 입헌군주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70,000	1.5
무슬림	10,845,021	95.3
불가지론	279,228	2.5
무신론	55,546	0.5

출처²

요르단에서는 두 가지 주요 정치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 한편에는 왕실과 함께 있는 압둘라 2세 국왕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군과 비밀경찰이 있다. 국왕은 정부를 임명하고, 법안을 승인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왕실은 요르단을 현대적이고 다종교적인 국가로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며(또한 요르단 사회에서 요르단 기독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경찰은 소수 무슬림 분파를 억압하는 것과 기독교인을 통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개종 권유 활동을 삼가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은 정치, 군,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비인가 집단에는 압력을 가하고 활동을 감시하며, 특히 이들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할 경우 더욱 그렇다.

미들 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 MEC)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교회에는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콥트 정교회, 그리스 가톨릭 교회, 마로나이트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시리아 교회, 그리고 성공회, 오순절 교회, 루터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포함된다”고 밝힌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은 요르단 기독교의 전형적 특징이다.

요르단은 전반적으로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편이지만,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네 차례의 이슬람주의 공격을 겪었다. 인권 옹호자들은 요르단의 통치자들이 테러 위협을 이용해 시민과 의회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해 왔다.

요르단에는 주로 이라크와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천 명은 기독교인이다.

미들 이스트 컨선(MEC 국가 프로필)은 요르단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르단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한다. 또한 종교를 포함한 차별 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공공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한 예배와 종교 의식의 자유로운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적용되는 이슬람법 아래에서 무슬림은 사실상 종교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며, 무슬림은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로 등록된 여성은 비무슬림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은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으며(라마단 기간에 음식에 관한 게시물조차도), 이슬람 다수파를 모욕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디지털 매체에서의 비판은 계속해서 비무슬림 종교를 겨냥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2023년에 온라인상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독교가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요르단에서 기독교인이 겪는 경험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 남부 지역은 더 보수적인 이슬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공동체가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큰 범주를 이룬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예를 들어 고용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은 신앙 때문에 가장 많은 침해 경험을 한다. 개종자의 새로운 신앙이 드러날 경우, 가족, 공동체, 정부 관리,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 폭력적인 종교 집단으로부터 압력과 심지어 폭력에 직면할 수 있다. 개종자의 자녀는 특히 취약하다. 무슬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는 가정 밖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이슬람 수업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개종자 다음으로, 복음주의 교회, 침례교, 오순절 교회 소속 회중의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반대에 직면하며, 특히 외부 사역에 적극적인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정보기관의 특별한 감시 대상이 되며, 정부의 압력과 취업 차단을 겪었다고 보고되어 왔다. 대부분의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단체로 인정된다. 다른 교파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저지되어 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적 억압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종교·민족 지도자들을 포함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압력과 심지어 폭력에 직면한다. 모든 기독교인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르단인들이 이슬람국가(IS) 이념에 의해 급진화될 위험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관용과 타 종교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에 이슬람적 가치와 법을 부과해 왔다.

씨족·부족 공동체에 의한 억압

이는 특히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요르단 사회는 대체로 부족 중심이며, 특히 대도시 밖에서 그러하고, 요르단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요르단에 유입되면서, 요르단은 순수 요르단인으로 여겨지는 '동부 지구(이스트 बैं크)' 출신과 팔레스타인/요르단인 '서부 지구(웨스트 बैं크)' 출신으로 분화되었다. 동부 지구 출신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진다.

독재적 피해의식

요르단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일부 권위주의 형태가 결합된 혼합 체제로 점점 더 묘사되고 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완전한 입헌민주주의가 아니며, 국왕과 일반 정보기관이 주요 의사결정의 원천이다. 국왕은 요르단과 중동의 기독교 공동체를 지지하고 이러한 기독교적 존재를 유지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는 온건하고 친서방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나 지역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이슬람주의 흐름을 포함해,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기독교 교파적 보호주의

교회의 분열은 요르단 기독교의 전형적 특징이다. 기존(전통) 교회와 새로운 교회(종종 은사주의 및 복음주의 운동을 포함함)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통 교회 출신 기독교인도 자신들의 회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주로 그리스 정교회 지도자들(때로는 가톨릭 지도자들)이 새로운 교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은 박해에 가장 취약하며, 가족이 통상 가장 큰 압력의 원천이 된다. 여성은 가택연금, 고립, 구타, 성희롱, 강제결혼의 위협에 처하며, 극단적인 경우 가족의 '명예'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살해될 수도 있다. 여성 개종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출국을 막기 위해 국가와 가족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신분(가사·가족) 관련 법은 가택연금과 강제결혼을 용이하게 하며, 배교 관련 법은 혼인 무효와 양육권 상실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자녀 양육권 박탈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법적 권리 거부
- 강제되는 종교적 복장 규범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살해 / 신체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경제적 차별은 실업, 승진 차단, 금전 갈취 등을 통해 모든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족의 재정 문제와 남성의 무가치감으로 이어지며, 다른 압력과 맞물려 남성이 이주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혼인 관련 법은 비개종 기독교인 남성과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 여성 사이의 법적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명예-수치 문화에서는 가족이 종교 선택을 이유로 남성을 공격하거나 거부하거나 집에서 내쫓을 수 있어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가는 정보기관 면담을 통해 남성에게 압력을 가하며, 특히 개종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복음 전도에 적극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대상이 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법적 권리 거부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50	65
2024	48	65
2023	49	65
2022	39	66
2021	38	64

전체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폭력 점수는 WWL 2024의 2.2점에서 2.4점으로 상승했다. 압력은 가정생활 영역에서 여전히 극심한 수준이었으며, 이 영역에서도 매우 소폭의 상승이 있었다. 그 밖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는 점수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매우 소폭 하락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선교 활동에 관여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구금:** 복음 전도 활동에 관여하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은 경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소요 시간은 20분에서 12일 사이로 달라질 수 있다.
- **성희롱:** 무슬림처럼 옷을 입지 않는 여성(즉,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은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 10명의 기독교인 여성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 여성은 특히 야간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개종자 몇몇과, 개종자를 돕고 제자훈련을 하는 데 적극적인 기독교인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이는 대체로 개종자의 가족에 의해 발생했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구금된 기독교인	강간 및/또는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2025	10*	10*	10*
2024	10*	10*	1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개종자의 신앙이 드러날 경우 샤리아 법원에 회부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무종교'로 판정되어 혼인을 포함한 모든 계약이 파기된다. 개종자는 감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잦고, 비밀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공부문 취업이 차단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배척을 당할 수 있다. 여성은 특히 가택연금, 강제결혼 및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목적의 기타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할 경우, 이는 쉽게 복음 전도의 시도(요르단에서는 금지됨)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 영역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의 자녀, 또는 기독교인 어머니와 무슬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자녀가 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혼의 경우, 이슬람을 떠난 사람은 이슬람법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상실한다.

공동체 영역

감시(전화 통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을 포함함)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나 복음 전도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강하게 이루어진다. 개종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복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 기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정부와 군에서의 승진에는 친무슬림 성향의 편향이 존재하지만, 의회 의석 9석은 기독교인에게 배정되어 있으며, 기독교인은 정기적으로 장관으로도 선출되어 왔다. 대부분의 요르단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므로, 기독교인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더 눈에 띄며, 부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영역

요르단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샤리아를 입법의 주요 근원으로 규정한다.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떠나 다

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비이슬람적 복음 전도 활동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반한다. 이슬람법의 배교 규정에 근거해, 공식 종교 소속을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또는 무종교)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사이버 범죄 관련 법과 정부의 체포 전력이 맞물려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발언, 특히 이슬람, 왕실, 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개종 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이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교회 영역

표면상 교회의 보호를 위해 교회 활동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일정 수준 존재한다. 그러나 도발적인 메시지나 활동이 포착되거나, 무슬림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관찰될 경우 이러한 감시는 교회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성경의 판매와 기독교 자료의 배포는 공인된 교회 및 교회 인접 서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일반 시장이나 서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요르단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요르단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상실할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허위로 고발을 당하고 구금된다 (ICCPR 제19조)
- 기독교인들은 체포될 경우 구타를 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ICCPR 제18조 및 제10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신앙 때문에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제7조)

요르단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일반적으로 요르단 당국은 비수니파 집단과 공동체에 대해 억압적인 경향을 보인다. 시아파 이슬람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수니파가 시아파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전해진다.

바하이는 공인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금지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바하이 신자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허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루즈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며 전통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 바하이 종교와 마찬가지로 드루즈 신앙도 요르단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체 종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수니파 무슬림 모스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 비무슬림이자 비기독교인 이주민들, 주로 불교도와 힌두교도 역시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례는 공식 허가 없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금지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을 떠나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정한 무슬림이나 다른 신념을 받아들인 무슬림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신자와 유사한 수준의 가족 및 공동체의 압력에 직면한다.

오픈도어의 요르단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협력 파트너와 교회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통해 요르단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 훈련
- 구호 및 재활

오픈도어는 또한 요르단의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